

전북체육회 스포츠 재능기부, 해가 갈수록 '인기'

각 학교·동호인들로부터 요청 쇄도
현재까지 13차례, 연말까지 9차례 진행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이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8일 대학과 실업팀의 선수·지도자들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2018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각 학교나 동호인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재능기부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선수와 지도자가 현장에 나가 일반 초·중·고 학생선수 및 동호인 선수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 폼나무 선수 발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월 전주대 사격팀을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총 13차례 재능기부가 이뤄졌고 올해 연말까지 9차례 가량 더 진행 될 예정이다.

도 체육회는 지난해 총 20차례의 재능기부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22차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목별로 보면 사격과 에어로빅, 검도, 씨름, 배드민턴, 정구, 양궁 등 7개 종목의 선수들이 현재까지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호원대 검도팀은 군산 술산초와 신성초체육관에



전북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이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펼쳐진 전주대 사격팀 재능기부.

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정읍시청 씨름팀은 부안초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체육 지식을 전달했다.

또 순창군청 정구팀과 전북도청 양궁팀도 각각 순창북합체육관과 원주소양서초 등에서 재능기부 사업을 펼쳤다.

이밖에도 전북에어로빅연맹과 군산대 배드민턴

부, 전북체고팀 등도 동참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재능 기부자와 학생·동호인 모두에게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다"며 "전북 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종목과 학교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수목토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최우수'

정읍시 수목토작은도서관(위원장 안영이, 이하 수목토도서관)은 지난 6일에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사례 공모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이에 정읍시 수목토도서관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분야에 응모하였고,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6일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있었던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치러졌으며, 수목토도서관의 권순보 운영자는 전국 운영자를 대상으로 20여분간 사례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용자가 사랑하는 작은도서관을 모토로 하는 운영상의 주안점과 2018년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그 내용이었다.

시에서는 시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14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이고, 3개 시립도서관(중앙, 신태인, 기적)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정읍 어느 곳에서나 쉽고 편하게 도서 열람·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예술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김대환 기자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전북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주최로 제8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송성환 도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이용민 도건설교통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어머니에 대한 격려와 어린이 교통안전 다짐결의를 진행했다.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로 스물셋 어린이 교통사망자는 2012년 이후 6년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417개)에서 녹색어머니(2만7,126명)의 어린이 등하길 보행지도 등의 활동과 각 기관의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다.

강인철 청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은 이러한 녹색어머니의 사랑과 봉사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을 수여했고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녹색어머니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힘써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라는 다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열어

남원소방서는 제56회 소방의 날을 맞아 의용소방대, 민간인 수상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공이 있는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및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며, 작은 음악회는 평소 실력을 갈고 닦은 직원들의 기타 연주, 하모니카 연주 및 의무소방원들의 합창 순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화재 등 재난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음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 모친상= 빈소: 전북대병원장례식장 2층 천실, 발인: 10일(토) 오전 8시 30분 장지: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선영하(남원승화원)



전북농협, 정읍 응동면 소철마을서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는 8일 전북미용봉사단과 함께 정읍시 응동면 소철마을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마을 활력화를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했다.

이날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 김재오 정읍시의원, 조현형 정읍시지부장, 권력빈 칠보농협조합장, 유금용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 농협 임직원과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꽃밭 조성, 전북미용봉사단(단장 박보라) 미용사 4명이 참여, 미용 재능 나눔 봉사, 한돈데이를 기념한 나눔 행사 등 마을주민에게 행복 나눔을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환경, 경관'이라는 공익적 가치 창출하여 농촌이 농업인에게 깨끗한 정주공간(定住空間), 생산공간,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경찰, 민방위대원 대상 통합폭력 예방교육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7일 오후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통합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공공용 여성청소년 계장은 가정폭력의 피해사례, 피해자 대처방법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미투, 불법촬영에 관한 설명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이쁨을 이해하고, 남 탓을 하기 전 먼저 나부터 내 삶에 있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 인지 감수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필히 언행에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알려드립니다 ◀◀

축! 결혼... 전주매일 교육부 장은성 차장


신랑: 장은성(장진섭·김복득씨 장남)군

신부: 전티심(전티미씨 장녀)양


일시: 10일(토) 낮 12시

장소: 전통생활문화체험관(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